

## 하나님의 주권

롬 9:19~29

### 네가 누구냐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왜 메시아를 죽였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 졌는가?’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전부 폐하여 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약속이 지켜져 온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도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살린 것을 불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뇨 하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뇨”

바울의 이 대답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아주 특이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논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가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통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리로 설명하기보다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하느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가?’하는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났느냐, 부모에게서 났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태어났는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 죄의 속성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줍니다.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여자는 혼자 먹지 않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권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시키고야 맙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기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여자 때문만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 토기장이와 진흙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이 사람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반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토기'는 인간을 뜻합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것은 귀히 쓰이는 그릇, 어떤 것은 막 쓰이는 그릇, 어떤 것은 밖에서 쓰는 그릇, 어떤 것은 안에 들여놓고 쓰는 그릇 등을 만듭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술작품이 예술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작품이 “왜 내게 이런 색을 칠하느냐?”라고 예술가에게 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감이며 창의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입니까? 소나 돼지, 물고기와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토기장이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를 도와주는 배경이 든든하면 할수록 더욱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독특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자유와 인간됨과 구원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주권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게 만드시는 토기장이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 그릇’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셨을 뿐이지, 나를 천대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거나 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 이방인을 향하여

바울의 두번째 대답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여기에 재미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흠의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명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 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기로 되어있는 사람과 공흠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할 사람마저도 선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치 않고, 긍휼을 받을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번째 설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호세아요, 두번째는 이사야입니다. 먼저 호세아를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글을 보면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인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인쳐주시고 교회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 받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겨우 대학교에 진학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 위를 걷고,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귀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도 쓸 줄을 몰라서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하소연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호세아를 통하여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창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와 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이는 ‘로암미’라는 아들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라는 말씀은 ‘로암미’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는 말씀은 ‘로루하마’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고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받고 천국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막판뒤집기’를 하십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

###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7,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버림받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갈을 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의 씨만 살아남습니다. 그 약속의 씨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 씨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29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씨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향불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라였습니다.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서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고, 광범위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yv.com>